

## 20세기 실존주의가 형성한 블랙의 패션 이미지

서 승 희\* · 김 영 인\*\*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조교수\*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The Image of Black Color in Fashion Formed by Existentialism in the 20th Century

Seung-Hee Suh\* · Young-I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10. 9. 22, 심사(수정)일: 2010. 12. 6, 게재확정일: 2010. 12. 30)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ashion image behind the colour black formed by existentialism in the 20th century. Human beings started to ask themselves questions about their nature and existence by undergoing two world wars in the 20th century. Existentialism was born out of these philosophical thoughts and in particular, French existentialists led the public discourse of the time and expressed their philosophical thoughts and ideas through black fashion. Therefore we revealed the existentialistic meanings of black by studying the French existentialist ideology and their black fashion. The thoughts of existentialism became popularized in France by French philosophers. *Sartre* especially played a big role in the popularization of existentialism in France. The black fashion worn by existentialists became popularized along with the ideology that it expressed. *Sartre's* thoughts on existentialism are summarized in existence Precedes Essence, self-reliance, and engagement. From these, the fashion image behind the colour black formed by existentialism was analogized to resistant image, nihilistic image and self-reliance image.

Key words: black(검정), existentialism(실존주의), fashion image(패션 이미지),  
*Sartre*(사르트르), subculture(하위문화)

## I. 서론

시각적 인식을 통해 취미를 판단<sup>1)</sup>할 때는 '판단하다'는 이성적 작동과 함께 감성적 작용을 수반하는데 칸트에 의하면 감성은 오감을 대신하는 하나의 개념을 의미한다. 인간의 오감은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통한 지각을 필요로 하며 그 중 조형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패션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감각은 시각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물을 분별하는 처음의 시각적 경험이 빛을 인식한 '색'이듯, 시각을 통한 취미판단의 기준에 있어 색이라는 시각적 요소는 미적 이미지 전달에 있어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인간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 형성되어 왔고 각각의 색은 이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물리적 색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이미지 형성의 근간이 된 시대적 사유와 사상을 연구해 보는 것은 색이 담고 있는 의미와 패션에서의 색의 역할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 그 어느 색 보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어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 폭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는 블랙(black)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블랙의 용어 사용에 있어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검정색, 검은색, 흑색 또는 먹색이 아닌 블랙으로 통일하고자함은 단어 상에서 느끼는 색상의 톤(tone)과 뉘앙스(nuance)의 차이에 의미를 두지 않기 위함이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에 일어난 급변한 사변들은 결국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낳았고, 이를 겪으면서 인간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이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실존주의로 정립되어왔고 특히 대중적인 시대의 공유를 이끈 프랑스의 실존주의자의 사유체계는 일련의 집단들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블랙 패션으로 프랑스 실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적 사상과 주장을 표현하였음에 주목하고 그들의 사상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블랙패션을 연구해 봄으로

써 블랙이 내포한 실존주의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패션에서 형성된 블랙의 실존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프랑스 실존주의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문학자이자 철학자로서 철학사에 있어 유래 없는 대중의 인기와 관심을 받음으로써 시대의 철학이 대중의 문화적 소산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중문화의 형태인 패션에 있어 실존주의 사상은 사르트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줄리엣 그레코(Juliette Greco, 1927- )나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ewey Davis, 1926-1991)와 같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블랙패션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의 관점에서 실존주의의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 포괄적인 실존주의의 사상을 고찰하기보다 당시의 시대정신과 사유체계 전반을 체계화, 대중화로 이끔으로서 패션에 영향을 미친 사르트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사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각은 서양에서의 실존주의자들에 의한 성찰에 앞서 이미 동양에서는 중국의 도교나 불교 선사상에서 앞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일본의 전통 미의식과 패션에 반영되어 어두운 중간색과 무채색의 복식으로 반꾸밈<sup>2)</sup>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다만 인간존재에 대한 자각을 사고하는 하나의 문화집단에서 이들 사상에 대한 표현으로 블랙을 채택했다는 점, 즉 대중의 입장에서 블랙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인지하고 패션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비트닉(Beatnic)<sup>3)</sup>과 펑크족의 블랙패션에 영향을 미친 실존주의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가 블랙패션에 담긴 이념적 사상을 연구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20세기 실존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 블랙패션, 즉 1950년대 이후 보여진 하위문화집단에서의 블랙패션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블랙이 역사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들을 알아봄으로써 블랙이 담은 실존주의적 이미지의 뿌리를 살펴보고, 이어 20세기 전반을 거쳐 1950년대 실존주의가 대두된 배경과 실존주의 사상의 개념에 대해, 그리고 특히 사르트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실존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블랙패션으로 표현되어 얻게 된 실존주의적

이미지를 도출해 내었다.

본 연구는 블랙복식의 역사와 실존주의 철학사상, 그리고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집단의 패션관련 문헌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해석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색채 연구는 심리학적, 문화적, 색채학적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형성된 사상적 근간을 분석함으로써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연구한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색채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 시도해보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I. 블랙 복식 이미지의 변천

블랙은 모든 색 파장을 흡수하는 색으로 보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엄숙함과 무거움, 두려움,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전달한다.<sup>4)</sup> 반면 현대적이고 도회적인 세련된 색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권위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블랙의 이런 다양한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패션에 적용된 사례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젊은 문화 집단에 있어서 계급서열 바깥에 있고자 하거나 또는 엘리트를 열망하고 흉내 내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패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탈리아 파시스트(fascist), 나치스(Nazis) 친위대, 1960년대의 모즈족(mods)<sup>5)</sup>과 할리 오토바이 폭주족의 검은 가죽 재킷, 80년대의 뉴로맨틱족(new romantic), 90년대의 고스족(goth)이나 70, 80년대 펑크족(punk)<sup>6)</sup>의 검은 색이 이에 해당하며 역사 속 블랙 패션의 의미적 가치는 여러 가지의 굴절을 거듭하여 20세기에 나타났다.<sup>7)</sup>

이렇게 블랙은 그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다양한 사례로 시대 속에서 의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미는 변해도 과거의 의미는 옷에 진 얼룩처럼 집요하게 남아 다중적이면서도 모순적인 블랙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20세기,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반성으로 형성된 블랙의 실존적 이미지도 과거의 블랙의 다양한 이미지 변천의 축적된 배경 속에 출

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어둠과 죽음, 애도, 금욕과 같은 부정적 의미와 함께 과시적 표현을 드러내기도 한 블랙의 이미지들은 이후 20세기 실존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블랙에 실존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미친 축적된 블랙 복식의 이미지 변천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둠과 밤을 연상케 하는 블랙의 부정적 이미지는 태초로부터 거역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블랙 복식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오늘날에까지 상복으로 입혀져 죽음과 슬픔이라는 암울함과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그리고 살아있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자해의 폭력을 통한 철저한 상실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수도사의 의무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애도는 곧 그들의 블랙 의상에 기독교적 금욕주의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삶의 덧없음과 자기 부정을 덧입혔다.

반면 슬픔에서 애정이 사라지면 애도는 과시가 되어 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더 많은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한다.<sup>8)</sup> 일례로 15세기 부르고뉴의 군주 필리프가 부친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기독교적 신앙의 표현으로 입기 시작한 블랙 의상은 궁정의 화려함과 함께 도덕성과 엄숙함 속에 담긴 고귀함과 우아함, 위엄과 권력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강력한 부르고뉴를 만든 필리프의 통치시절에 그의 궁정과 귀족사회는 유럽의 패션에 영향을 미쳤으며,<sup>9)</sup> 이후 16세기 카를로스 1세와 펠리페 2세의 스페인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도 같은 의미로 블랙 복식은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블랙 의상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신중함과 도덕적 신뢰를 내포하면서 사치스럽게 과시하는 모순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났는데 이는 계급에 속하지 않는 상인에게 있어 블랙은 과시를 거부하는 시늉을 하면서 과시는 색이었기 때문이다.<sup>10)</sup> 한편 중세시대 성직자들의 블랙 복식이 보여주었던 권세는 19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신흥직업 전문가들에게로 그 권세를 대체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절제되고 수수한 세련미를 추구한 낭만적인 댄디 스타일로도 표현되었다. 이렇게 블랙의 과시적인 이미지는 오랜 기간 사회적 위상과

함께 다양한 계급층에서 이어져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남성의 복식을 중심으로 블랙 색상이 의미 변화를 이끌어 왔다면 근대에 들어서는 여성복에서도 블랙은 죽음, 두려움과 애도, 도덕적이거나 청교도적인, 짐잡거나 겸손한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 찬 과시와 잠재적인 관능을 가진 권력으로 표현되었다. 결핍을 암시했던 과거 여성복에서의 블랙은 남성의 우월성을 버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남성에게만 연관되던 자신감과 권력을 보이게 된 것이다.<sup>11)</sup>

한편 20세기의 격동의 시기는 희망이 사라진 이 세상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과학적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성찰을 하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지적인 힘을 보여주었던 실존주의자들은 블랙 의상을 하나의 매개로 시대의 사유체계가 되었던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으며, 이로써 패션에서 블랙의 이미지는 20세기에 들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았다.

### Ⅲ. 사르트르 실존주의 사상의 특징

#### 1. 실존주의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지금까지의 서양의 물질우선주의와 실증주의, 합리적 이성주의가 가져온 거대한 재앙과 정신적 피해 속에서 나약한 인간의 존재가 직면한 불안과 부조리, 자기 소외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나타난 인간 존재의 사유 철학이 실존주의 사상이다.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마르셀(Gabriel Marcel, 1889-1973), 그리고 사르트르에 걸쳐 형성 확대되어온 이 사상은 어느 한 개인의 사상을 다듬은 통일된 단일 사유체계라기 보다 여러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 확대되어왔다.<sup>12)</sup>

그리스 이래 서양의 철학은 인간의 실존보다 사물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본질인 존재 자체에 대한 연구로 전통적인 관념론에 몰두해 왔으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 오면서 지금까지의 서구의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통해 얻은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발전이 결국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았다. 이로 인해 허무감과 절망감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인간의 존재적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각적인 인간의 실존의 구조를 인식하고 규명하고자 나타난 것이 '실존주의'이다. 이는 관념적인 철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시대적 혼란을 통해 행동하는 철학이자 대중을 이끌어가는 사유체계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청년 지식층에게 영향을 미쳤다.

#### 2. 실존주의의 개념

실존주의자 각각의 세세한 이론들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들의 공통된 관심과 주장에 의해 실존주의를 특징지을 수 있다. 서구철학 2천년의 역사는 존재에 대한 망각의 역사로,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분명한 개념이기에 사고의 필요조차 없었던 개념이라면 이들 실존주의자에게 있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철학의 근본적 물음이라 여겼다.<sup>13)</sup>

실존주의자들에게 있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은 관념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인간 개개인에 대한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스로 추구하는 진리는 실존하는 진리 즉, 주체적 진리를 향하는 인간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다른 어떤 존재로 부터도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독립체로서의 인간의 실존 즉, 감각적 향락과 기계문명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 존재의 본래의 위치를 찾고자 함이 실존주의의 근본 문제 제기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해법은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자유로운 결단과 선택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립하고 미래를 결정하며, 하이데거는 이렇게 자신의 기획을 매순간 앞으로 투사하며 전진하는 것을 기획투사(Entwurf)<sup>14)</sup>라고 하였다. '기획투사'이란 인간 실존의 기초적 존재현상으로서의 이해의 존재론적 구조이며, 현존재(Dasein)<sup>15)</sup>가 세계-내-존재(In-der-Welt-sein)<sup>16)</sup>로서 실존하는 가능성의 방식들이다.<sup>17)</sup> 여기서 기획투사의 주체인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이 실존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한편 실존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간과 그 존재 방식이 다르며 이를 인간의 실존과 구별하였다. 사용 용도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물은 그 본질에 따라 존재가 나타나는 반면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고 여기에 있는 내 실존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한 존재이다. 이렇게 세상에 내던져진 막연한 불안감과 고통, 죄의식, 절망감, 그리고 부조리의 논리 속에 실존주의자들의 사유방식은 냉소적이고, 모든 위선과 엄숙, 권위를 부정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그들이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실존주의적 철학 아래 경계 지워졌다.

### 3.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

세계의 모든 이치는 신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만들어지며 그 속에 인간 또한 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라이프니츠(Gottfrid Leibniz, 1646-1716)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적 문화 속에 이어온 세계관은 18세기 신을 부정하는 철학자들에 의해 무신론이 대두되기 전까지 재고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인간을 자유로운 주체인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인간 속에 선형적인 인식의 태두리가 처음부터 구비되어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인간의 본질은 그 존재보다 앞선다고 보았다.<sup>18)</sup> 이후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와 하이데거를 거쳐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장 폴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하나의 대중적 실천을 이끄는 행동하는 사상으로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이어졌다.

대중과 괴리된 철학이 직접적으로 대중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 전례는 드물었으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중의 호응으로 그의 사상을 피력하고 대중 문화에도 영향을 끼친 사르트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철학적 사고가 대중과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 지식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존주의자들의 이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앞에서 언급한대

로 사르트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사르트르 이론이 여타 실존주의자들과 비교해서 연구의 깊이나 논리적 체계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대중적 성공을 통해 대중문화의 소산인 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 주목해서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패션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르트르 사상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 1) 본질에 앞선 실존

인간의 존재는 인식을 통해 이해되고 신을 통해 결정지어진다는 전통철학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앞서 본질에 대한 연구를 우선하여 이루어졌다. 신은 일종의 공예가로서 인간이라는 작품을 기술과 개념 작용으로 만든다는, 다시 말해 개개의 인간은 신의 오성 속에 있는 어떤 개념을 구현시키고 있는 것이라는<sup>19)</sup> 결정론적 인간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유럽의 형이상학자들은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찾는데만 급급하여 시간 속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인간의 '실존'을 도외시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이제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라 신의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서, -여기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무신론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는 치더라도 아무것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즉, 문제는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는<sup>21)</sup> 관점을 말한다. - 인간은 어떤 정의도 내릴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이 세상에 우연히 나타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식을 가진 '대자(fuer sich)<sup>22)</sup>인 인간과 의식을 가지지 않은 '즉자(an sich)<sup>23)</sup>인 사물로 구분하고 사물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즉 본질에 따라 그 존재가 만들어진다. 반면 인간은 사용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따라서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고난 인간성이란 있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변화해가는 존재이다.

## 2) 인간 주체성

이 세상에 우연으로 던져져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고독한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주관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지향적 존재이다. 여기서 자유로운 선택은 자신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며 또한 나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이 되는 타자(他者)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의식을 통해 자신을 창조해 나가고 타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명제 속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으로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사상<sup>24)</sup>이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부여하는 이론이라면, 코기토로서 인식한 자신의 모습은 결국 나 이외의 타인을 통해 발견되고 이해되는 상호 주체성의 세계인 것이다. 여기서 자유로운 선택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는 모범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자신을 형성하는 책임 속에 이루어진다는 인간의 보편성을 말함으로써 신이 사라진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해명하였다.

따라서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는 죽을 때까지 책임이 따르는 불안과 고독이 동반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나가고 결정하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 3) 앙가주망(Engagement)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동과 실천이 동반된다. 인간은 의식하는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는 내에서, 즉 행동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세계와 실존상황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극복해 나아가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인 이 사고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헤쳐 나가는 행동하는 지식층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며, 사르트르는 문학을 사회혁명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참여문학을 주장하였다. 인간은 '세계 내의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롭게 이 세계에 구속되어 각자의 상황에 대응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 즉 현대의 상태로부터 자기해방을 도모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한 자기구속, 앙가주망을 강조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를 주장하였다.<sup>25)</sup>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 사회적 참여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 IV. 블랙 패션이 지닌 실존주의 이미지

블랙이 복식의 역사를 통해 형성했던 불안, 암울함, 덧없음, 과시의 이미지는, 1950년대 시대적 상황 속에 실존주의가 대중으로부터 이해되고 블랙 패션으로 표현됨으로써, 실존주의자들의 화두가 되었던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과 세계관이 블랙의 이미지에 덧입혀져 실존주의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당시 사르트르의 행동하는 사상은 실존주의자 자신들의 패션뿐 아니라 비트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다양한 하위문화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의 실존주의적 의식이 블랙패션으로 표현되었다. 기본적으로 하위문화는 실존주의가 인식하는 세계관과 저항과 허무, 자유성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하위문화들이 공유하는 실존적 이미지는 저항적, 허무적, 주체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이 블랙패션에 반영됨으로써 블랙이 가지게 된 이미지에 중점을 두었다.

### 1. 저항적 이미지

플라톤 이후 이어져온 서양철학의 본질에 대한 인간을 흔들며 보편적 체계를 거부하고 전후 세대들이 체제에 대한 절망을 행동으로 맞서게 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사상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관습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 펑크족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문명의 이기로 잃어버린 인간의 자아회복을 주장하던 반체제주의이자 반 자본주의자였던 펑크족들에게 있어 실존적 자각은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펑크족들이 실존주의 사상에 심취하거나 깊이 있는 이념적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저에 깔려있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실존적 불안, 저항적인 행동은 실존주의자들이 주

장하는 '즉자'와 구별되는 '대자'로서의 개별적 존재인 자아와 자유, 행동의 철학의 표현이었다. 최근에는 영국 현대작가 스코트 킹(Scott King, 1967- )<sup>26)</sup>이 실존주의, 이성주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관념을 펑크 하위문화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기도 하였다.<sup>27)</sup>

펑크는 7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런던 킹스 로드(King's Road)를 중심으로 영국의 청년 노동자계급들이 좌절, 절망, 공포의 내적 심리를 충격적이고 요란스럽게 표현하는 반문화운동이다. 복식에서의 계급, 사회에 대한 저항 심리는 안티패션적인 경향을 띠면서 거침없는 자아표현을 강조하고,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여 저항적 삶을 영위하고자 나타나게 된다.<sup>28)</sup> 70, 80년대 펑크 스타일(punk style)은 도처에 만연한 절망을 공격적으로 과시하고, 중산층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과장하여 조롱하며, 추하게 행동함으로써 절망에 대처하였다. 또한 복잡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소외감과 무관심 속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이탈행동으로 나타난 펑크족(punk)은 혐오스러운 정도로 파괴적이고 기괴함을 나타내었다.<sup>29)</sup> 펑크족은 진정 무정부 상태였으며, 검정 티셔츠, 검정 가죽 재킷, 검은 부츠, 검은 벨트, 검정 장갑에 젤을 발라 세운 검은 색 머리로 그 에너지를 표출하였다.<sup>30)</sup> <그림 1><sup>31)</sup> <그림 2><sup>32)</sup>에서 보여지는, 펑크족에게 있어 블랙은 현실에 대한 분노와 반항을 자연으로의 회귀로 답했던 히피들(hippies)에 반하여 인공적이고 공격적인 강인함으로 표출하는 최적의

수단이었다.

## 2. 허무적 이미지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부정을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펑크와 같은 무정부주의적인 표현이 있다면 소극적으로 체념하고 도피하며 덧없는 현세를 거부하는 자세가 허무주의이다.<sup>33)</sup> 물론 펑크족에게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은 공존하였지만 여기서는 과격한 펑크족에 대한 시각을 분리하여 본다.

보헤미안적 생활양식과 동양의 신비주의에 몰입하면서 부르주아 사회의 얽매임을 거부하였던 당시의 젊은 지식계급인 비트족(beatnic)<sup>34)</sup>은 당시의 실존주의적 가치, 행동의 공허함, 사회적 변화에 대한 허무주의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낭만적 무정부주의와 개인주의가 중심 주제였다.<sup>35)</sup>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존재의 나약함과 그로 인한 불안으로 지식층 사이에서 <그림 3><sup>36)</sup>에서 처럼 특히 여성들은 섬세하거나 우아해 보이지 않고 또는 거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블랙복식을 착용하였는데 남성복을 빌려 입을 방법을 택하였다.<sup>37)</sup> 일종의 패션에 대한 무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연출한 패션은 정장이 아닌 스웨터로 진지함, 사상의 중요성, 지적인 힘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격식 없고 속세적인 성직자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sup>38)</sup> 스위스 화가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 1962- )에 의하면 현란한 옷을 입는 사람과 달리 검은 옷을 입는 이는 내면에



<그림 1> Plasmatics- 70년대 펑크 그룹  
http://www.musikator.com



<그림 2> 펑크족  
http://www.myspace.com/kulop



<그림 3> 줄리에트 그레코  
http://every-little-counts.blogspot.com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요란하게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sup>39)</sup> 한 것과 의미를 같이한다.

한편 실존주의가 보여주었던 고독과 불안, 죽음, 허무, 부조리를 대중적인 제스처로 드러낸 프랑스 여가수 줄리에트 그레코는 당시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 문학과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삶의 강령으로 실존주의사상을 받아들였다. 사르트르와 기타 실존주의자들의 작품을 노래의 가사로 채택하여 그들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였으며 부조리의 현실을 저항의 목소리로 대변하였다.

검게 칠한 아이라인, 검은 코듀로이 바지, 그리고 목까지 올라가는 검은 스웨터로 유명했던 그녀의 패션은 검은 옷을 즐겼던 실존주의자들의 패션과 더불어 대중들에게는 하나의 실존주의적 삶의 모방의 도구가 되었다. 이제 경계의 색인 검은 옷은 대중의 가치에 더 이상 순응을 하지 않고 대중을 초월하려는 모든 집단에서 선호하게 된 것이다.<sup>40)</sup>

### 3. 주체적 이미지

인간의 삶에 대한 선택이 자유에 맡겨지고 개성의 존중과 표현에 대한 추구가 스스로에 대한 자각으로 인정 받으면서, 트렌드라는 주류의 흐름을 벗어난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패션이 특히 하위문화로 표현되었다. 사회에 의해 정의되고 제시 받는 패션이 아니라 패션으로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주류로부터 스스로를 이탈시킨 여러 하위문화 패션에서 블랙은 주체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능동적으로 주류문화로부터 배격당하고 주변화 된 하위문화 집단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스타일로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 중 블랙을 하나의 패션스타일로 반영한 하위문화로는 대표적으로 스킨헤드(skinhead), 펑크(punk), 비트(beat), 고스(goth)를 들 수 있다.

결정된 본질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했던 실존주의 사상은 현대 패션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주체성이라는 특징을 확립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였다.

## V. 결론

망막을 통해 전달되는 수많은 유채색의 존재 속에 색상과 채도가 사라지고 명도만으로 구별되는 무채색은 마치 소리가 사라진 세계에서 존재론적 인식을 이끄는 상념과도 같은 것이다. 색이 가진 시각적 자극을 버린 블랙은 대상의 존재 즉, 형식과 내용을 인식하게 하고 패션에 있어서는 착장자의 존재를 무게감 있게 부각시키는 역할에 충실한 색이다.

블랙이 존재적 의미를 부여받은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은 기존의 블랙의 이미지에 본질적 전통관을 벗어난 실존적 의미를 추가하였고 이후 20세기 후반을 거쳐 여러 문화집단을 통해 실존적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시대적 사고가 담긴 철학적 사상이 색상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사례로 20세기 실존주의를 고찰해 봄으로써 블랙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사상으로 해석해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20세기 세계대전의 물질시대가 만든 파괴는 철학자들에게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이끌었고, 존재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전복시켰다. 본질에 앞선 실존과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실존주의 사상은 프랑스 실존주의자들, 특히 사르트르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그들이 착용한 블랙패션은 패션과 함께 그에 내포된 사상까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한 점에 주목하여 먼저 사르트르의 실존사상을 고찰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라는 존재에 앞서 신을 통해 결정지어진 본질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전통철학에 반하여, 사르트르에 의하면 신이 사라진 이 세상에 인간의 존재는 우연히 나타나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나간다. 따라서 신에 의해 정해진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우선된 실존인 것이다.

둘째,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은 책임이 따르는 불안과 고독이 동반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나가고 결정하는 인간의 주체성이다.

셋째,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 가능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목적을 향한 행동과 실천, 즉 앙가주망을 주장하며 사회참여를 독려한다.



이러한 실존주의 사상은 현실에 대한 부정, 전통적 인간존재 인식에 대한 거부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이후 저항적, 허무적, 주체적 이미지를 내포하는 블랙 패션으로 표현하였다.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절망적인 시대상황은 하위문화를 형성하였고 이들에게 실존주의적 자각은 자신들의 존재를 일깨우고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블랙 색상으로 표현된 실존주의적 이미지는 첫째로, 복식에서의 계급, 사회에 대한 저항 심리로 안티패션적인 경향을 띠면서 거침없는 자아표현을 강조하고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여 저항적 삶을 영위하고자 나타난 펑크 패션의 저항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블랙은 현실에 대한 분노와 반항을 자연으로의 회귀로 답했던 히피들에 반하여 인공적이고 공격적인 강인함으로 표출하는 최적의 수단이었다.

둘째, 보헤미안적 생활양식과 동양의 신비주의에 몰입하면서 부르주아 사회의 엄매임을 거부하였던 당시의 젊은 지식계급인 비트족은 당시의 실존주의적 가치, 행동의 공허함, 사회적 변화에 대한 허무주의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낭만적 부정부주의와 개인주의가 중심주제였다. 소극적으로 체념하고 도피하며 덧없는 현세를 거부하는 자세를 담고 있는 허무적인 이미지는 검게 칠한 아이라인, 검은 코듀로이 바지, 그리고 목까지 올라가는 검은 스웨터에 의한 무심한 패션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본질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했던 실존주의 사상은 현대 패션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주체성이라는 특징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사회에 의해 정의되고 제시받는 패션이 아니라 패션으로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주류로부터 스스로를 이탈시킨 여러 하위문화 패션에서 블랙은 주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칸트 철학에서, 미적(美的) 판단 양식의 하나로 미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거나 미적으로 쾌감을 준다고 단정하는 것이 '취미판단'이다. 예술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란 객관적일 수도 없다. 다만 보편타당한 개인적인 감정이 존재하며 따라서 '취미판단'은 주관적이고 무관심적으로 이루어진다.

- 2) 일본의 대표적 미의식 중 하나로 그 바탕에는 선사상과 도가사상이 깔려있다. 단순미, 빈곤미, 자연미, 절제미, 유희미, 애매모호, 유희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미국 문학가 존 케투악에 의해 처음 주도된 반문화 운동인 비트는 1940,50년대 문화적 획일주의에 절망하는 미국청년 세대들의 패배적 허무주의를 문학과 음악을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현대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규제로부터 벗어난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운 사고는 이후 60년대 들어 반문화 히피로 전수되었다.
- 4) 박현일, 최재영 (2003). *색채학 사전*. 서울: 도서출판 국제, p. 10.
- 5) 1960년대 영국에서 발생한 노동자계급 자녀들 중심의 하위문화 집단으로 초기 테디보이 스타일의 막대한 패션을 보였으며 한편 아노락으로 값비싼 의상을 보호하고 스쿠터를 몰고 다니며 집단행동을 하였다.
- 6) 1970년대 중반, 런던 킹스로드에서 말콤 맥라렌과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운영한 부티크와 말콤 맥라렌이 이끌었던 그룹 'Sexpostol'에 의해 대중적으로 전파되었다. 당시 평화적 부정부주의자인 히피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격하고 파괴적인 부정부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체인이나 비닐, 반정부 슬로건 프린트와 찢어진 티셔츠, 피어싱, 플라스틱 가방, 모히칸 헤어스타일과 같은 인공적이고 DIY(Do It Yourself, 손수 만든 제품)로 가학적인 패션스타일을 보여주었다.
- 7) Harvey, John R (1995). *Men in Black*. 최성숙 역 (2008). *블랙패션의 문화사*. 서울: 심산 출판사, pp. 348-349.
- 8) *Ibid*, p. 71.
- 9) *Ibid*, pp. 74-76.
- 10) *Ibid*, p. 89.
- 11) *Ibid*, pp. 319-320.
- 12) Sartre, Jean-Paul (1945). *Existentialism is a Humanism*. 왕사영 역 (1993).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청아출판사, p. 7.
- 13) 미학대계간행회 (2007).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578.
- 14) 企劃投射, 하이데거는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세상에 내던져진 현존재(Dasein)는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미래를 기획하고 현실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미래를 기획투사 한다고 하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현존재를 실존이라 한다.
- 15) 現-存在, 하이데거가 '거기 있음'을 뜻하는 단어 Dasein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철학용어로, 자신을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존재자. 사물이나 도구 따위의 존재와는 달리, 원래 자유로운 실존으로서 세계 안에서 존재함을 이른다.
- 16) 세계 속에 다른 존재자와 교섭을 가지면서 존재하고, 존재에 관심을 두는 현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르는 말이다.

- 17) 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1980). *Heideggers Philosophie Der Kunst*. 이기상, 강태성 역 (1997).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서울: 문예출판사, p. 88.
- 18) Sartre, Jean-Paul (1945). *Existentialism is a Humanism*. 방근 역 (1999).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서울: 문예출판사, p. 15.
- 19) *Ibid*, p. 14.
- 20) 황보종우 (2007). *세계의 모든 책*. 서울: 청아출판사, p. 438.
- 21) Sartre, Jean - Paul. *op.cit.*, p. 56.
- 22) 對自, 의식의 존재로 결핍의 자각을 통해 끊임없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 23) 卽自, 사물의 존재형식으로 자기의식을 가지지 않은 존재이다. 또는 인식하는 주관에 대해서 아직 발현(發現)되지 않거나 자기 자신에의 반성적 관계가 결여되었다는 뜻에서 '무자각태(無自覺態)'의 뜻도 된다.
- 24)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 Cogito ergo sum
- 25)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앙가주망'
- 26)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i-D 매거진의 아트디렉터, 잡지 슬리제네이션(Sleazenation)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했다.
- 27) 일주아트 스페이스 (2007). *Graphic Semantics* 전. 디자인정글. 자료검색일 2010. 11. 5, 자료출처 <http://ex.jungle.co.kr/ex/korea/view.asp?sid=1682>
- 28) 현지연 (2005). *현대패션의 빈곤기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 29) 김영인 외 (2009). *패션의 색채언어*. 서울: 교문사, p. 110.
- 30) Harvey, John R. *op. cit.*, p. 349.
- 31) Rudolf Dethu (2009. 2. 16). WTF:Mo'Mohawk, Mo'Mohican. *Musikator Blog*. retrieved 2010. July 12, from <http://www.musikator.com/wtf-mo-mohawk-mo-mohican>
- 32) Don Kulop (2010. 4. 13). Death to Life. *zamri ibrahim (Don Kulop) on Myspace*. retrieved 2010. July 12, from <http://www.myspace.com/kulop>
- 33) 송명희 (199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4.
- 34) 김영인 외. *앞의 책*, p. 109.
- 35) Roy Shuker (1998). *Key concepts in popular music*. 이정엽, 장호연 역. *대중음악사전* (1999). 서울: 한나래, pp. 262-263.
- 36) Every little counts (2009. 12. 9). Juliette Greco. *Every Little Counts Blog*. retrieved 2010. July 12, from <http://every-little-counts.blogspot.com/2009/12/juliette-greco.html>
- 37) Clancy, Deirdre (1996). *Costume since 1945-Couture, street style and anti-fashion*. Herbert Press, p. 58.
- 38) Harvey, John R. *op.cit.*, p. 351.
- 39) Heller, Eva (1989). *Farben Auf Gefühl Und Verstand Wirken*. 이영희 역 (2002). *색의 유희1*. 서울: 예담, p. 202.
- 40) Heller, Eva. *op. cit.*, p. 203.